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업용수 안정공급 위한 현장 중심 물관리 설명회 개최

✎ 이효섭 기자 | ⌚ 승인 2026.04.23 11:55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공주시사가 계룡저수지에서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현장설명회와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교육을 23일 실시했다.

이날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및 지역주민, 수리시설감시원 등 60명이 참가 농업용수 공급 체계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공유했다.



또 극한호우 및 일상적 가뭄에 대비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와 함께 영농급수 추진계획 및 수리시설 운영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현장 안전수칙, 비상시 사고 예방 요령 등 교육을 진행했다.

박수진 지사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시의 물관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이효섭기자



이효섭 기자 9922hs@hanmail.net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 都 日 報

joongdo.co.kr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계룡저수지서 현장 설명회

극한호우·가뭄 대비 시설 점검...영농급수 계획 공유
취수탑 시연·안전교육 병행...현장 중심 물관리 강화

고중선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6-04-23 11:47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21일 계룡저수지에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현장설명회와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공주시사 제공)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설명회가 공주 계룡저수지에서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는 21일 계룡면 하대리 계룡저수지 일원에서 농업용수 공급 체계와 수리시설 안전관리를 주제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은원 계룡면장을 비롯해 농업인과 지역주민, 수리시설감시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극한호우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영농급수 추진계획과 수리시설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현장 안전수칙과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취수탑과 용수로 등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현장 중심 방식으로 운영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취수탑 작동 시연을 통해 실제 운영 과정을 공유하며 실효성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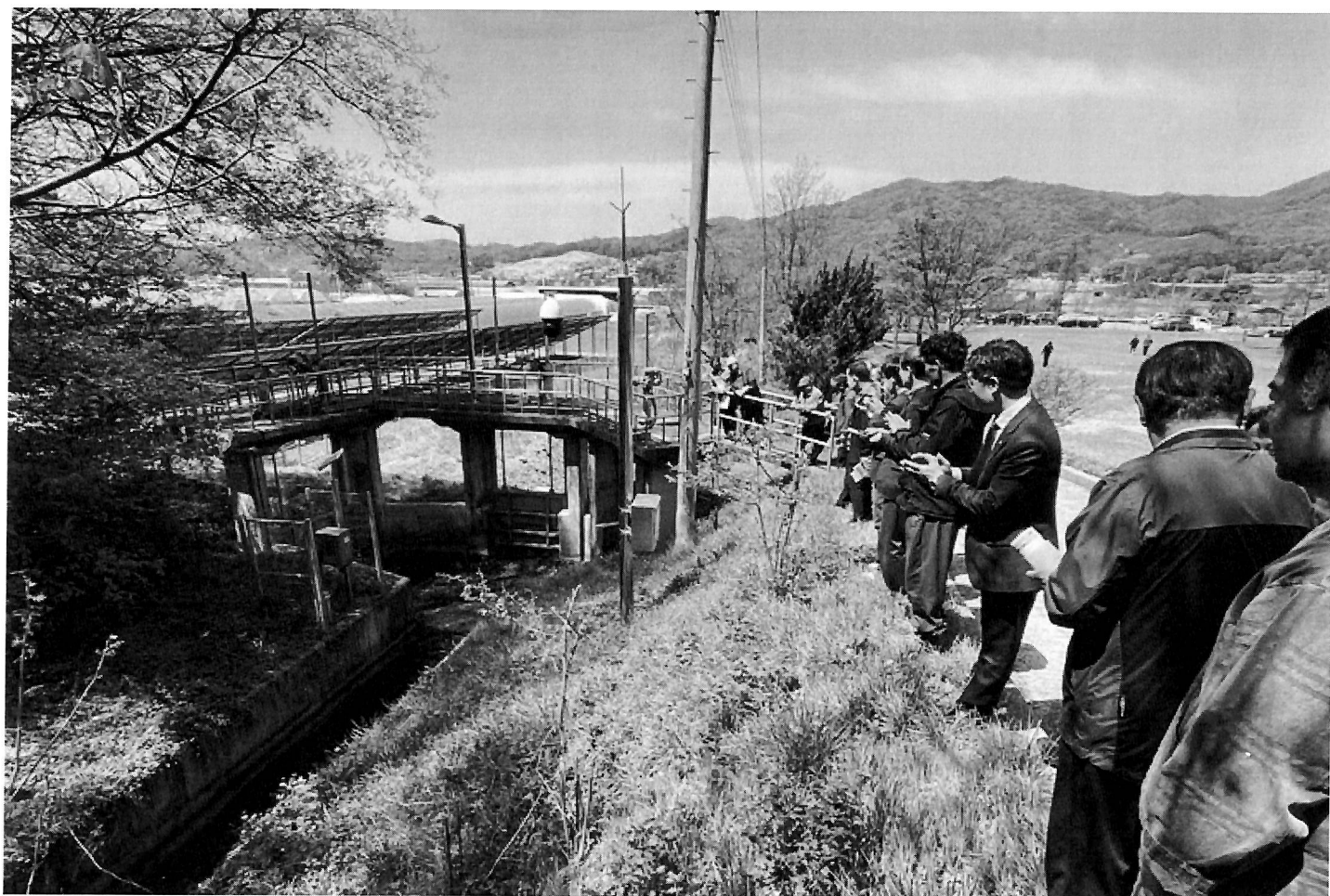
박수진 공주지사는 "현장 중심의 물관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과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물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농업 생산성과 지역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고종선 기자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업용수 안정공급 물관리 설명회

✎ 이병인 기자 | ㉠ 승인 2026.04.23 10:01



▲ 계룡저수지 취수탑 작동 시연 사진/공주시사 제공.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수진)는 지난 22일, 계룡면 하대리에 위치한 계룡저수지에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현장설명회와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서은원 계룡면장), 농업인 및 지역주민, 수리시설감시원 등 60명이 참여해 농업용수 공급 체계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극한호우 및 일상적 가뭄에 대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 확인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방안과 영농급수 추진계획 및 농업용 수리시설 운영관리 방법, 현장 안전수칙, 비상시 사고 예방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계룡저수지 취수탑 및 용수로 등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방식으로 취수탑 작동 시연을 통해 실제 운영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박수진 공주시사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시의 물관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병인 기자 byung813@jbnews.com